

재무회계에서 어떤 경우에는 기초액을 빼고 기말은 더하는 경우가 있고, 또한 반대로 기초액을 더하고 기말은 빼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

기초는 더하고, 기말은 빼는 경우

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****비용 계산 (소모, 사용, 판매 등)****에서 사용됩니다.

예시: 매출원가 계산

$$\text{매출원가} = \text{기초재고} + \text{당기매입} - \text{기말재고}$$

- 기초재고: 작년엔 남은 것, 올해 사용 가능 → 더함
- 당기매입: 올해 새로 산 것 → 더함
- 기말재고: 올해 남은 것, 실제로 안 쓴 것 → 빼줌

즉, 실제로 '사용된' 재고만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

$$\text{기초} + \text{매입} - \text{기말}$$

기초는 빼고, 기말은 더하는 경우

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산, 부채 등 변동 분석에서 사용됩니다.

예시: 현금흐름표 (간접법) - 운전자본 조정

-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→ 현금이 묶였다 → 현금 유출 → 기말 - 기초 → 증가분은 빼기
- 미지급금이 증가했다 → 지출을 미뤘다 → 현금 보존 → 증가분은 더하기

즉,

$$\text{증가한 자산} \Rightarrow (-), \quad \text{증가한 부채} \Rightarrow (+)$$

그래서 기초 빼고 기말 더함 (기말 - 기초 = 증가분) 을 활용

요약 정리표

상황/목적	기초는?	기말은?	왜?
매출원가 계산	더함	뺀	실제 사용량 계산
제조원가 계산	더함	뺀	실제 투입 자원 계산
현금흐름표(운전자본 변화)	뺀	더함	자산 증감이 현금에 미치는 영향
감가상각비 계산	무관	기말자산에 따라 결정	잔존가치나 잔존내용연수 고려

핵심 포인트

- 소비나 비용 관련 → 기초는 "더하고", 기말은 "빼는" 게 많음
- 재무상태 변화 분석 → 기초는 "빼고", 기말은 "더하는" 구조 (기말 - 기초)